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54 (주님은 나의 목자)	221 (받아주소서)	169 (사랑의 성사)	2 (주 하느님 크시도다)

제 1독서 | 예레미야 23,1-6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화답송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좌)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

○(우)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좌)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우)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 에페소서 2,13-18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6,30-34

영성체 후 묵상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멀리 있던 이들에게도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권고대로, 좀 쉬고 다시 열정적으로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Today's Gospel, <Mark 6:30-34>

The apostles gathered together with Jesus and reported all they had done and taught. He said to them,

“Come away by yourselves to a deserted place and rest a while.”

People were coming and going in great numbers, and they had no opportunity even to eat. So they went off in the boat by themselves to a deserted place. People

saw them leaving and many came to know about it.

They hastened there on foot from all the towns and arrived at the place before them. When he disembarked and saw the vast crowd, his heart was moved with pity for them, for they were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 and he began to teach them many things.

그때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After Israel had experienced centuries of incompetent, self-seeking, and corrupt leadership (as exemplified by Herod Antipas), there was a growing recognition that ultimately only God himself can adequately guide his people and provide for their needs. The prophets had announced a great promise: “Thus says the Lord God: I myself will look after and tend my sheep... I myself will pasture my sheep” (Ezek 34:11,15 see Isa 40:11). The Gospel of Mark hints that Jesus is himself is the divine shepherd, the fulfillment of God’s promise to care for his people directly and no longer through an intermediary.



성전에서 미사가 거행되거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의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항상 붉은 등이 켜진 금속 상자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감실' (龕室)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감'은 불교와 유교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부처님이나 신주(神主)를 모신 공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에 오면서 성체를 모시는 공간으로 '감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감실'의 본래 의미는 무엇 일까요? 감실을 뜻하는 라틴어 'Tabernaculum'은 천막이나 오두막을 뜻하는데, '천막'은 탈출기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고자 이동식 성소를 마련하라고 명하셨고, 성경에서는 '만남의 천막(탈출 33.7-11)으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즉, 천막은 하느님과 그의 백성이 모세를 통해 만난 거룩한 장소였고, 하느님께서 현존하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느님의 거처'라는 뜻을 지닌 감실 (Tabernaculum)은 처음부터 교회에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초창기에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미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이 작은 상자에 성체를 담아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끝난 후 성체

는 일반 가정이나 아닌 성당에만 보관 하였고, 지금의 용도와 같게 되었습니다.

감실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사 때 축성된 성체를 보관하고, 성찬례에 참여하지 못한 환자를 위해 성체를 모셔두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자들이 감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묵상'함으로써 예수 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감실 옆에는 불을 켜 놓아 성체가 모셔져 있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올리브를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한 등불을 만남의 천막 안 증언 귀 앞"(탈출 27.21)에 켜 두라고 명하셨고, 교회는 전통에 따라 등불을 켜 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현존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주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감실은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고 사랑의 희생을 새롭게 하는 상징적인 장소이며 우리에게 만남의 천막에서 주님의 얼굴을 친구처럼 마주한 모세의 기쁨을 경험하도록 초대합니다.

- 김일권 사도요한 신부 (수원교구)

공지 사항

1. '제 4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엽서 보내기
올해로 4년차를 맞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을 위한 엽서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성전 입구에 마련된 엽서 혹은 각자가 준비하신 편지에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출해주시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괄 발송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작성하신 엽서를 **7월 28일(주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캔버라 한인성당 교적 정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 안내

양업 전산시스템에 신자분들의 교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교적의 전산 등록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동의서를 작성하여, 입구 테이블 위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7월 7일	유아·청소년: 21명	성인: 55명
7월 14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50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7월 21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7월 28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7월 21일)	마태오반
다음주 (7월 28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7월 13일 ~ 7월 19일)

봉 헌 금	\$318			
교 무 금	\$710			
김요한	박서영	안영규	양홍석	윤현대
이국원	이지영	장호훈	정은영	주정자
최민식	허준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 첫영성체를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